

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53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6월 2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키자!

### 6/26(월)~29(목)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22일 전 사업장 조정신청 돌입

금속노조가 22일(목) 2017년 임단협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 지부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및 대각선교섭 등 130여 사업장, 3만2천여 조합원이 소속된 교섭단위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일정에 따르면 7월 3일부터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인 가결을!

지부는 조정 기간 중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가결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노조파괴 분쇄와 임단투 승리를 위해 언제나 투쟁에 돌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각 지회에서 벌어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찬성이 절실하다.

한편 지부는 총파업 투쟁 성사를 위해 지난 주부터 지회 현장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을

만나고, 지회 확대간부 동지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부를 중심의 총파업 투쟁을 함께 결의하고 있다. 지회마다 현안문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힘을 하나로 모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만들고 있다.

#### 7월초 총파업으로!

지부는 7월 첫 주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전 조합원의 하나된 힘을 모은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키고 총파업을 대규모로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노조파괴-복수노조 사업장과 임단투 악질 사업장을 중 한 곳을 응징한다. 자세한 투쟁계획은 26일 지부 운영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뜨거워지는 날씨만큼 점점 투쟁의 기운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부는 올해는 반드시 여름 휴가 전에 타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7월초 지부 총파업은 올해 투쟁의 타결 시기를 가늠할 것이다. 압도적 가결, 대규모 총파업은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 현대성우메탈지회 총회 투쟁의지 활활

충주의 현대성우메탈지회가 25일(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당당한 노동자의 모습을 찾기 위해 기존 한국노총을 박차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품으로 들어온 조합원들의 모습은 투쟁의지로 가득차 있었다. 지회는 총회를 통해 조합비 개정, 특별결의금 거출, 단협 요구안 확정을 의결했고, 대의원 선출까지 마쳤다.

지회 설립 이후 사측의 교묘한 탄압과 차별, 한국노총의 흑색 선전이 빗발치고 있지만, 지회 조합원들은 단단하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바로서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금속노조 강화만이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이런 의지를 다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 투쟁의지가 활활 타올랐다.

#### \* 이번주 일정 \*

- **쟁의행위 찬반투표**  
6/26(월)~29(목) 지회별 지정장소
- **충북 차별철폐 대행진**  
6/26(월) 16:30 충북대사거리-성안길
- **지부 총파업 조직화 현장순회**  
6/27(화) 엔텍-유성-코스모링크  
6/28(수) KDK-현대오토넷사내하청  
6/29(목) 보쉬전장-콘티넨탈-코스모촉매
-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6/30(금) 15:00 서울 광화문 광장